

# 변화보다 안정... 내실 다지고, 스타트업과 영업 경쟁력 강화

## 2023 보험사 경영전략

### ⑤ 현대해상

조용일·이성재 대표 연임 유력  
금융시장 불안, 저성장 기조에  
이익 기반 내실경영 지속 추진

5개분야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  
소통·공감 통해 영업채널 확대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이사 부회장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 사장

현대해상은 올해 보험업 본업 강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경영 기조는 '이익 기반의 내실 경영'과 '영업 경쟁력 강화'로 잡았다.

지난달 현대해상은 조용일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이성재 대표이사를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2020년 3월 공동 대표로 선임된 이후 꾸준히 실적 개선을 이룬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조 부회장과 이 사장은 오는 3월 임기 종료로 앞두고 있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연임으로 받아 들인다.

두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금리 상승과 금융시장의 불안, 저성장 기조 등으

로 여전히 쉽지 않은 환경이 예상된다"고 했다. 올해도 임기 간 이어온 내실 경영이 지속될 전망이다.

#### ◆소통 행보로 판매 채널 강화

현대해상은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몸집 불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보험업 강화는 물론 영업채널 확대 등을 위해서다. 스타트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디지털 전환'과 'ESG경영'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고 있다. 올해는 신성장파트를 신설했다. 신성장파트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미래 먹거리 창출이 주 업무다.

현대해상은 '스타트업 오픈 스테이지'를 운영했다. 지난해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와의 사업 협력을 통해 ▲모빌

리티 ▲핀테크 ▲버티컬플랫폼 ▲데이터분석 ▲헬스케어 등 5개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을 모집했다. 전문성은 물론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의를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다.

현대해상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새 단장을 진행했다. 비대면 판매 채널 강화의 일환으로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와 함께 새로운 인증방식을 도입했다. 소비자가 직접 장기보험 계약 및 손해사 실정이 가능하며 자동차보험 담보와 특약도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손봤다.

모바일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를 위해 실손전환 전용 콜센터도 운영한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간소화

해 기존 가입 보험 상품과 비교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더라도 4세대 전환이 가능하다. 추가 보장 희망자에 한해서는 별도로 설계사를 안내하는 업무도 있다. 중장년층과 노인들 또한 간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조 대표와 이 대표는 "현대해상이 도약과 성장을 통해 한층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통과 공감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판매 창구 다변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 ◆유병력자도 'OK', 디지털 전환 성과는?

현대해상은 손보업계에서 '유병력자 보험' 부문에서 강세를 보인다.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 디지털 전환 또한 보험금 누수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입창구 다변화를 통해 신규 가입자의 연령층을 넓히려는 전략이다. 올해부터 보험업계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화두인 만큼 가입창구 다변화는 강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현대해상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 심사를 유병자 보험에 적용했다. '가상 언더라이팅'을 이용해 가입자의 서류 준비를 간소화하고 인수가능한 경증질

환 등은 자동으로 심사한다. 가상 언더라이팅은 실손보험 빅데이터를 사용해 인수 여부에 따른 담보별 예상손해율을 계산하는 기술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색출해 보험금 누수도 예방한다. 현대해상의 하이-FDS(Hi-FDS) 시스템은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색출하고 현장 조사관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지난해 7월까지 잡아낸 보험사기꾼은 약 2만명에 달하며 1935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이처럼 내실 강화 기조를 통해 입구 관리에도 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에는 '간편한305건강보험'을 출시했다. 보험 가입이 한정한 유병자를 위해 질문사항을 대폭 축소한 간편 보험이다. 상품은 3개월 이내 의사 소견 5년 내 6대 중대질병 치료력만 확인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조 대표와 이 대표는 "올해 역시 여전히 힘든 경영 환경이 예상되지만 소통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한 해의 마지막에는 다함께 만족스러운 성과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정선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1분기 기업·가계 신용위험 증가 전망

2022년 4분기 대출행태서베이  
국내은행, 대출 문턱 낮추는데  
비은행은 높아져 저신용자 위축

올해 1분기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국내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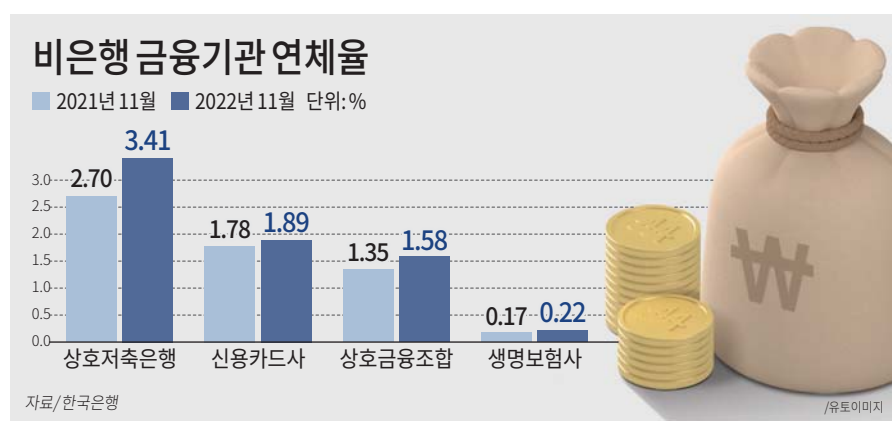
국내은행의 대출문턱은 낮아지는 반면 저축은행·카드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문턱은 높아져 신용도가 낮은 기업과 가계의 대출시장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국내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이 모두 1분기에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내기업 중 중소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채무능력 저하 등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감독원 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된 185개 기업 중 183개사가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26개사가 늘었다.

올해 1분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각각 25, 42를 나타냈다. 지수가 플러스(+)일 경우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은행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은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너스(-)일 때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같은기간 가계주택, 가계일반을 포괄하는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44로 전분기보다 5포인트(p) 증가했다. 가계대출금리는 지난 2021년 6월말 2.74%에서 지난해 11월말 4.43%로 1.69%p 올랐다. 취약차주의 재무건전성이 낮아지고,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이 늘어나면서 신용위험이 증가할 것이라



분석이다. 대출수요는 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수요지수는 각각 19, 14로 전분기(28, 3)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모두 플러스를 나타냈다. 대내외 경기둔화우려에 따라 유동성 확보수요가 늘고, 회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대출수요를 예상한 은행이 그렇지 않은 은행보다 많았다.

가계 대출수요는 주택시장이 부진하고, 대출금리가 상승하며, 주택자금과 일반자금 수요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전국주택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104.7에서 11월 101.7로 감소하고, 거래량 또한 같은 기간 9만 1000호에서 3만호로 줄었다. 1분기 가계주택과 가계일반의 대출수요지수는 -22로 전분기(-19)보다 감소했다.

대출문턱은 낮아질 전망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6, 11을 기록했다. 은행은 예대율 규제 등이 완화되며 대출여력이 증가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며 대출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는 주택자금을 중심으로 대출문

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1분기 가계주택과 가계일반의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28, 3이다. 지수가 플러스면 대출심사를 완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기관, 마이너스면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더 많다는 뜻이다.

반면 저축은행, 신용카드사와 같은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금리상승으로 차주의 상환부담이 증대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대출태도지수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가 각각 -45와 -31을 기록했다.

1분기 비은행금융기관의 모든 업권에서 신용위험은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비은행기관의 연체율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모든 업권에서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11월 2.7%에서 지난해 11월 3.41%로, 신용카드사는 같은기간 1.78%→1.89%, 생명보험사는 0.17%→0.22%로 늘었다.

대출수요는 기업운전자금 등을 중심으로 저축은행과 생명보험사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상호금융조합과 신용카드사는 가계를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나유리 기자 yul115@

## 국민은행, 주담대·전세대출 금리 내린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1.05%p 인하  
전세자금대출도 최대 1.30%p ↓

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1.30%포인트(p)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금리인하대상 상품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다. 먼저 KB주택담보대출은 신규 코픽스 기준 최대 1.05%p 인하된다. KB주택담보대출 신잔액코픽스 또한 최대 0.75%p 하향 조정된다.

전세자금대출상품에서는 KB주택전세자금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및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인하된다. 특히 KB전세금안심대출의 경우 신규코픽스 기준 최대 1.30%p 대폭

인하되며, 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은 신잔액코픽스 기준 0.90%p 하향 조정된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12월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최대 0.50%p, 0.75%p를 인하한 바 있으나, 최근 기준금리가 3.50%까지 오르는 등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대출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이자비용 경감 및 서민경제 안정화 기여 등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금리 인하를 추가로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금리 인하로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농협은행, 취약층 위해 12.6조 금융지원

금리인하·수수료 완전면제 등 실시  
지역신보재단 등에 700억 특별출연

NH농협은행이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지역금융의 역할을 다하고자 12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리인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특별출연 ▲NH올원뱅크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완전 면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기여까지 크게 네 부분으로 진행했다.

가계·기업 대출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우대금리를 0.3%에서 0.5%로 0.2%포인트(p) 확대했다. 농식품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0.1%에서 0.3%로 0.2%p 올렸다.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청년전월세 상생지원 우대금리를 당초 0.3%에서 0.5%로 0.2%p 높이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0.8%p 인하한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700억원 특별출연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기업 등의 자금난을 해소한다. /김정선 기자